

대우로지스틱스

기업 회생절차 졸업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중형선사인 대우로지스틱스(사장 안용남)가 2년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했다. 5월 18일 삼선로직스가 기업회생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 판결을 받는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5월 26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1,21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원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이번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하게 됐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아직 138억원의 회생채권을 상환해야하지만 법원 파산부는 정상적인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선언했다. 대우는 블루오션1호에서 지원받은 투자금 중 조기변제하고 남은 투자금을 향후 미변제된 138억원의 채권 변제와 신규 선박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생기업에 투자한 것은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가 처음이며 이는 회생절차 종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자본시장의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인웨어

체크카드 운임할인 서비스 시작



인천과 중국의 대련을 연결하는 카페리항로를 운항중인 대인웨어(공동대표이사 이용우, 유홍과)가 대고객서비스 제고 및 여객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한중카페리 업계 최초로 여객운임의 5%를 할인해주는 체크카드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된다.

한중합작 카페리선사인 대인웨어는 하나SK카드와 업무 제휴를 통해 '하나SK 벳(友)체크카드'를 소지한 중국인들에게 대인호 이용시 5%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월8일 밝혔다.

하나SK 벳(友)체크카드는 국내 거주중인 65만명의 중국인을 위한 전용 체크카드로 하나금융그룹의 중국 영업기반 확대전략으로 만들어진 하나은행의 중국인전용 '168통장', '중국어 폰 뱅킹 서비스'에 이어 국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국인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 11월에 첫 출시됐다.

이 체크카드는 핸드폰 무료통화30분 서비스(전월 30만원 이상 사용시), 3대 대형마트/약국업종 사용시 5% 캐시백,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보험 무료가입(최고 1,000만원), 해외송금환율우대 30~70%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이번에

대인훼리 여객운임 5%할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돼, 대인훼리를 이용하는 중국인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SK벤티체크카드는 7월 1일부터 하나은행 지정영업점은 물론, 대인훼리 여객선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한편 대인훼리 관계자는 “대인훼리는 중국 사천성 지진과 연변의 수해로 인한 재난시 의연금을 전달하고 안중근 기념사업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한중간 우호관계 증진과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노력해왔다.

이번에 하나SK와 업무제휴도 대인호를 이용하는 중국인 여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SK해운

한국정책금융공사 선박금융 지원

SK해운(사장 황규호)은 그린십을 건조하면 선박금융지원은 물론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유재한)의 KOFC Green Ship Program의 첫 수혜자로 결정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SK해운은 지난 6월 15일 KOFC Green Ship Program 적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5만 DWT급 VLOC 1척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SK해운이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해 2012년 하반기에 인도받게 되는 25만 DWT급 VLOC가 그린십 프로그램을 만족함에 따라 선가의 약 70%까지 선순위 선박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SK해운이 이번에 KOFC Green Ship Program의 첫 수혜를 받게 되는 VLOC는 지난해말 글로벌사와 체결한 20년짜리 현대제철 철광석 총4,400만톤을 호주 및 브라질에서 당진까

지 운송하는 전용선 계약에 투입될 예정인 선박으로 전해지고 있다.

SK해운은 이미 지난해말 현대삼호중공업에 VLOC를 발주했는데 이번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그린십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등 선박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발주된 선박이라도 그린십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린십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린십 인증에 대한 부분은 DNV와 협약을 통해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정책금융공사측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린십 프로그램의 첫 혜택을 받은 SK해운은 일반 시중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의 선박금융 금리를 제공받았으며 선가의 20%는 국내 일반 시중 은행에서 후순위로, 나머지 10%는 자담으로 부담하는 등 근래 성사된 선박금융중 최고의 조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TX팬오션

SPC에 9,130만불 보증

STX팬오션(회장 이종철)이 선박금융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총 9,130만 달러(986억5,878만원)의 채무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STX팬오션은 SPC인 POS Maritime MZ S.A.와 POS Maritime NZ S.A.에 각각 3,080만달러씩, POS Maritime OZ S.A.에 2,970만 달러 등 총9,130만 달러의 채무보증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6월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으로 STX팬오션이 신조선 선박금융 조달을 위해 SPC와 해외법인 등에 보증을 서준 채무보증 총액은 11억66만4,307달러(1조

1,893억7,785만원)에 달하게 됐다.

STX팬오션은 현재 VLOC 8척, 케이프 7척, 파나막스 11척, 핸디막스 24척, 핸디 4척, 중량물 운반선 1척 등 총 55척의 벌크선을 신조 발주했으며 이외에도 컨테이너선 2척, 자동차운반선 2척, VLCC 2척, PSV 3척 등 총 9척의 선박을 신조 발주해 총 64척의 선박을 건조중에 있다.

장금상선 대기업 성장가능성 인정받았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견선사인 장금상선(회장 정태순)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주목된다.

장금상선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6월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KOFC Frontier Champ기업으로 선정돼 이날 인증서를 받았다.

KOFC Frontier Champ기업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자체 선정한 중소중견기업들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16개 기업들이 이번에 인증을 받았다. 장금상선은 16개 기업중 해운선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기업을 토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제금융실 관계자는 "장금상선은 최근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견선사로 평가돼 이번에 KOFC Frontier Champ기업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장금상선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박금융은 물론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금상선은 국양해운, 조강해운, 한성라인 등의 외항선사와 국양로지텍, 경평물류, 시노코엔지니어링, YJC 시노코 로지텍 등 자회사 등 7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실질적인 물류그룹이다.

계열사 매출까지 모두 포함하면 매출 1조원이

훌쩍 넘는 장금상선은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7위권의 외항국적선사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유코카캐리어스, 대한해운, SK해운 등 해운물류대기업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장금상선은 근해정기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해운호황기 직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싱글헬 VLCC를 VLOC로 개조해 대형 벌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면서 해운위기가 도래한 2008년 이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장금상선과 같이 가능성 있지만 금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국적선사들을 발굴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제2, 제3의 장금상선과 같은 국적선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경해운 신일본서비스 개시

천경해운(사장 김지수)이 7월 3일부터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일본서비스를 선보인다. 천경해운은 7월 3일부터 342TEU급 컨테이너선 Sky Duke호를 투입해 부산-와카야마-이요미시마를 연결하는 주1항차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에 천경해운이 새롭게 선박을 투입하는 와카야마는 천경해운이 과거 선박을 투입했다가 철수했던 항만으로 그동안 타선사 선박입차를 통해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에 사선을 신규로 투입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요미시마는 천경해운이 항로 개척 차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서비스하는 곳으로 일본 시코쿠 고치현에 위치한 항만이다. 천경해운은 이번에 새롭게 부산-와카야마-이요미시마 서비스를 개

시함에 따라 일본에 취항중인 항만수를 총 20여 개항으로 확대하게 됐다.

한편 천경해운 관계자는 새로운 일본 서비스 개설과 관련해 “그동안 타선사 선박을 임차해 제한적인 서비스를 해왔지만 이번에 사선을 투입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플라리스쉬핑

임원 승진인사 단행

플라리스쉬핑(사장 김원중)이 회사의 영업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7월1일부로 조남경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임원 승진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남경 상무이사를 전무이사(영업기획본부장)로 노용래 부장을 상무이사보(영업기획본부 영업총괄)로의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한진해운

1만 3,000TEU급 컨선 발주

한진해운(사장 김영민)이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중 단연 최대 선형인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신조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진해운은 6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대형사선 확충을 통한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신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선가는 9,236억 3,250만원(8억5,640만 달러)으로 척당 1억7,128 달러이며 납기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며, 실제 건조계약 체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이번 공시 발표에 대해 노르웨이 해

사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지난 2008년 독일의 금융기업인 MPC Munchmeyer Petersen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1만 3,100TEU급 컨테이너선 9척 중 일부를 리세일을 통해 한진해운이 인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MPC는 2008년에 현대중공업에 척당 1억 7,000만달러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받는 조건으로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8척과 옵션 1척을 발주한 바 있는데 이들 선박의 용선주가 바로 한진해운(12년간 척당 일일 용선료 5만 9,950달러)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추론의 근거다.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컨테이너선은 지난 2006년에 삼성중공업에 시리트로 발주해 건조중인 1만TEU급 컨테이너선 5척으로 지금까지 Hanjin Netherlands호, Hanjin China호, Hanjin Spain호, Hanjin United Kindom호 등 4척을 인도받아 유럽항로에 투입했고 이외에 1만TEU급 컨테이너선 3척(Hanjin Germany호, Hanjin Italy호, Hanjin Greece호)을 용선해 총 7척의 1만TEU급 컨선대를 운항중에 있다.

현재 한진해운이 발주해 건조중인 컨테이너선은 연내에 인도될 예정인 1만TEU급 1척과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인 4,600TEU급 3척이 전부다.

한편, 한진해운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중동항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7월 7일부터 NYK사와 손잡고 기존 FMX(Far East / Middle East Express)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지금까지 이 항로에서 한진해운은 STX 팬오션 및 장금상선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7월 7일부터는 NYK사로 파트너를 교체한다. 또한 투입선박도 기존 6척의 4,500~5,300TEU급을 6,200~6,500TEU급 6척으로 교체한다. 한진해운이 5척 그리고 NYK

사가 1척을 투입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아시아~중동항로의 교역량은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고 이 시장에서 한진해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중동항로는 주요 기간항로를 제외한 항로에서 가장 큰 항로로 성장했다. 지난해 이 항로에서 수송된 물량은 520만TEU였으며 2012년경에는 620만TEU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상선

해사부문 사무실 이전

현대상선(대표 이석희) 해사부문 사무실이 부산 해양빌딩에서 부산우체국빌딩으로 이전한다.

현대상선은 더욱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6월 13일부로 해사부문의 사무실을 기존 부산 해양빌딩에서 부산우체국빌딩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현대상선 해사부문 중 해사지원본부(해사기획팀, 해무팀, 안전관리팀)와 선박정비본부(유조선관리팀, 컨테이너 정비팀, 벌크선정비팀)은 부산우체국 보험회관 빌딩 5층으로 이전하고 6층에는 선원라운지와 가족상담실, 부산영업팀, 부산운영팀, 부산고객팀, 해양선박이, 7층에는 선원트레이닝 센터가 각각 이전하게 된다.

새롭게 이전 하는 사무실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보험회관빌딩 5~7층이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이전하기 전의 번호와 동일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등록 안내책자 발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이 '선박검사

와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관련 개정된 법령 사항을 선박소유자 등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선박등록 및 검사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생길 수 있는 고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에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각각의 등록 및 검사 대상 선박 식별 방법과, 등록 및 검사 신청방법, 신청기관과 절차가 도표, 삽화 등으로 고객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검사제도 관련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소통경영 및 직원 총화 워크숍 개최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이 직원들과의 소통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선급이 6월 2일 개최한 '소통경영 및 직원 총화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우리 회사의 인재교육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미래룩희단을 시도해봤으면 합니다."와 같은 젊은 직원들의 패기 있는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오공균 회장을 비롯한 전임원진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젊은 직원들은 주목하지 않고 평소 회사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사실 이와 같은 장면은 한국선급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미 한국선급은 조직의 역량 극대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조직 내 원활한 소

통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내부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선급은 생일자 간담회, 임원들과 신입직원 간의 호프타임, 회사 인트라넷 내 사내 토론방 운영, 정기적 전사경영설명회, 소통워크숍 등을 통해 회사 상황과 비전에 대해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회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입사 3년차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구성하여 주요 경영, 전략회의에서 회사의 중요 안전이나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선급의 오공균 회장은 "직원들과 경영진간의 소통은 한국선급 임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향후에도 소통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비전 2020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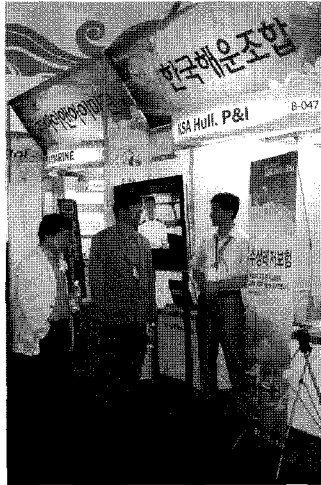
한편, 한국선급은 6월 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인정원이 선정하는 ISO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ISO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 환경경영 등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조 서비스 산업으로 한국선급은 지난 1994년부터 인증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인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기존 팀제로 운영하던 인증업무를 한국선급 인증원으로 통합 승격시켜 대한민국 대표 ISO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다.

한국선급의 조남수 인증원장은 "ISO 부실인증에 대한 우려로 지식경제부가 지난 5월부터 ISO 부실인증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한국선급의 ISO 인증 심사업무의 경쟁력을 대변해 주는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수상레저공제 상품 인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개발한 수상레저공제 상품이 6월8일 화성전곡항에서 개최된 2011 경기국제포트쇼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국해운조합은 2011 경기국제보트쇼에 홍보관을 설치하

고 수상레저공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운조합 수상레저공제상품은 우리나라 레저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지난 4월에 출시한 공제 상품으로 기본담보, 특약담보, 수상레저기구 손해 담보로 구분되고 있다. 기본담보에는 개인배상책임과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를 담보하고 특약담보로는 제3자 배상책임과 치료비 담보, 수상레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수상레저기구 손해담보를 기본가입으로 수상레저기구 전손만을 담보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1년 경기 국제 보트쇼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로 매년 전세계 10여개국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월드 매칭레이싱 투어(WMRT)의 한국 내 개최대회로 아메리카스컵과 볼보오션레이스와 함께 세계 3대 요트대회 중 하나이다.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대학교에 장학금 전달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6월20일 오전 한국해양대학교 본부동 3층 접견실에서 '2011년 (사)한국도선사협회(회장 송정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사)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은 협회의 '글로벌 해양 전문 인력'으로 선발된 4명의 장학생들을 위해 9,600만원을 한국해양대에 전달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해양대 백지우(4년·항해학부), 김태형(4년·항해학부), 윤미란(4년·해사수송과학부), 강진규(4년·해사수송과학부) 학생은 앞으로 1년간 매월 200만원씩 해외 유학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도선사협회는 한국해양대생이 해외 명문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유학비를 매년 지원하며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처음 이 장학금이 신설된 이후 올해까지 한국해양대에 전달한 금액은 총 2억4,000만 원으로 10명의 한국해양대 학생에게 지급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CIQ-민관 합동간담회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6월22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CIQ 기관 및 민관 관계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객부두 활성화를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및 시설물 개선방안과 재정사업인 신국제여객부두 건설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화물증가에 따른 밀수품 밀반입 적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카페리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은 급증하고 있는 평택항의 화물과 이용객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처리장의 면적을 확충해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협소한 주차장 시설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항의 카페리항로 추가 개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신설항로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기존운항 선사들간 스케줄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하루빨리 미흡하고 노후화된 기존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여객부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을 선사와 화주 등이 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냐"며 "항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들을 모아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CIQ기관인 평택세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 식약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비롯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항발전협의회, 항해객화선사협회,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동

방컨테이너터미널, 장금상선, 영성대룡해운, 세창해운, 시·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물동량 월간 최고치 경신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는 5월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141만 5,000TEU를 기록, 역대 월간 최고치였던 지난 3월의 140만 2,000TEU를 두 달 만에 넘어섰다고 6월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 늘어난 수치로, 수출입화물은 13% 증가(75만8,000TEU), 환적화물은 14% 증가(64만5,000TEU)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항의 누계 물동량 역시 역대 최고치인 651만3,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처리물동량 증가는 부산항 기항 상위 10대 선사들의 환적화물이 23.1%로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환적화물이 2009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10만 톤(약 8,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부산항 입항도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27회에서 2011년 같은 기간 77회로 대폭 늘어났다.

선사들의 부산항 기항 서비스 역시 5월에만 3개가 신설되는 등 부산항의 물동량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산항이 이같이 연일 호조를 보이는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입 화물의 증가와 BPA가 2007년부터 적극적으로 펼쳐온 환적화물 마케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PA는 2011년 하반기에도 세계 주요선사와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 추진해 장기적으로 부산항의 환적화물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환적화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홍보관 설치

울산항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홍보할 수 있는 울산항 홍보관이 설치된다. 현재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건립중인 울산항만공사 신사옥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1층에 설치되는 울산항 홍보관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효과적인 울산항 홍보관 설치를 위해 6월21일 오후,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및 울산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 홍보관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항 홍보관은 항만산업의 구성, 세계의 항구, 영상등대, 액체물류 체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약 4개월간의 시공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울산시 남구에서 추진중인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내에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울산항 홍보관이 개방되면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건설공사 신기술정보 교류

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중인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 정보 및 인천신항 개발사업의 효과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6월 1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사업은 현재 주공정인 케이슨 제작 및 거치를 88함 중 85함을 완료함에 따라 60%이상의 실적공정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75%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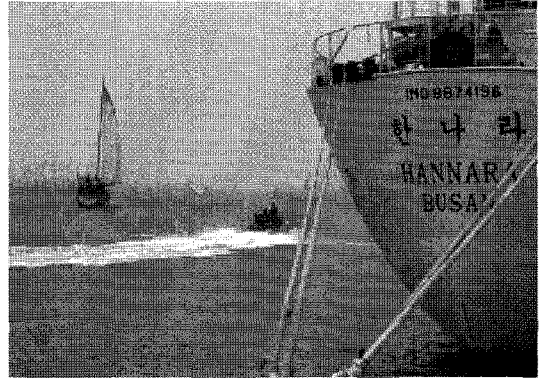
이날 설명회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련 기술직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천신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함께 약616만㎡ 규모의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24시간 연속콘크리트 타설공법이 적용되는 케이슨 제작 및 무게가 약 5,800톤에 달하는 대형 케이슨을 DCL(Draft Controlled Launcher)선으로 운반 및 거치하는 신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인천항만공사 최중문 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인천신항 대형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사업의 야심찬 계획을 공유하였다"며 "인천항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케이슨 제작 및 거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올해도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문 활짝



한국해양대(총장 오거돈) 해양레포츠 아카데미가 올해도 문을 열었다.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은 6월 22일 친해양의식 함양과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를 6월 20일부터 개설해 오는 8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여름철이면 부산·경남지역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온 한국해양대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는 올해 대한제강(주) 400명, 스카웃경남 600명, 대한청소년연맹 3,500명 등 기업 및 기관에서 대규모 단위로 참가하여 이미 1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지난해 요트조정면허시험장으로도 선정된 한국해양대 주변 수역에서 진행되며 반일, 1일, 1박2일, 2박3일 과정에 따라 레저카누, 스노클링, 워터 슬라이드, 해양레프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 하해동 원장은 "교육 참가자들이 해양레저스포츠를 거부감 없이 즐기고 해양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이 갖춘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